

음양의 순환원리를 적용한 춤사위 개발 및 분석*

남선희**

I. 서론	IV. 결론
II. 음양사상과 순환원리의 개념	참고문헌
III. 음양의 순환원리를 적용한 춤사위 연구	Abstract

I. 서론

자연은 끊임없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욕구는 내적 질문을 양산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가 누려온 문명의 혜택은 현 시대에 다양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발전의 가속화, 다각화가 심화될수록 인간은 문명의 발달과 환경 간에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직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중국 고대 경전에는 자연을 관찰했던 기록들이 나타나있는데, 이는 자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심오한 이치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다.

문자학적 측면에서 ‘生生’은 식물이 싹트고 자란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생은 만물이 진進하고 출出하는 모든 형상이자 순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生生生生’이라는 사상으로 확대되어 ‘생하고 또 생한다’는 전통적 해석법 혹은 ‘만물이 화생(변화)한다’와 같이 풀이되었다. 더 나아가 두 해석법을 절충한 창생創生 혹은 창화創化의 개념은 생생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내재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¹⁾

동·서양에서 자연에 대한 관점은 곧 세계관으로 귀결될 수 있다.²⁾ 이러한 측면에서 만물은 변화의 가운데 존재하며 탄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와 사멸을 반복한다. 순환의 과정 속에서 자연은, 음陰과 양陽에 대응하는 원리를 따라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형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조화의 선행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음양론은 “음과 양의 관계로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과 생성 소멸을 소장消長·변전變轉으로 설명하려는 역이론易理論”³⁾으로, 관계하는 대상이 화합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완성

* 본 연구는 2018학년도 남선희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박사 수료, sunhkr2003@gmail.com

1) 윤임규(1993), 『역경의 생생 사상 연구』, 이숙자(역)(서울: 분도출판사, 2001), p.56.

2) 이은정, 김명숙(2018), 노장사상의 무(無) 사유형식을 적용한 춤사위 개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1(4), p.140.

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론의 근간이 되는 음양사상은 자연의 순환 원리에서 더 나아가 인간사회의 문화적 관념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이는 특히 동양문화권에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종교관, 윤리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

음양의 작용과 변화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조화는 자연과 자연,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온 인류의 관계에 있어 보편적으로 지향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범우주적 보편성을 띠는 점에 있어서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앞서 순환적 흐름과 조화의 태도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 및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데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춤 분야에서는 ‘음양의 순환원리 개념’을 작품의 이론적 근거 혹은 특징적 요소로써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철학적 사유와 춤사위 간 상관성에 대한 분석의 절차는 비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철학적인 근거를 한국춤 예술로 재해석하여 음양의 순환이론과 한국춤 춤사위 간 상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동양철학 개념의 예술표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음양의 순환원리를 적용하여 한국춤 춤사위를 개발 및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주역을 기술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등의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유가철학과 도가철학에서 논하는 음양사상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둘째, 음양의 순환원리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특질을 분석하고 이를 움직임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실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음양의 순환이론과 인간 운동발달 단계 중 기본운동단계⁵⁾의 특질을 반영하여 좌립보주坐立步走의 상징적 형태로 표현하였다. 셋째, 춤사위의 분석을 위해 루돌프 본 라반의 에포트Effort 이론을 활용하여 각 춤사위의 특징을 도식화 하였다. 춤사위 개발의 과정은 연구자의 창작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음양의 순환원리를 근간으로 새로운 춤사위를 개발하여 한국춤의 영역을 확장하고 안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순환성의 개념이 춤사위 개발에 적용되는 과정을 밝히고, 더 나아가 생생의 개념을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써 본질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조화의 반향을 촉구하고자 한다.

II. 음양사상과 순환원리의 개념

자연과 인간은 조화調和라는 하나의 공통된 지향점이 있다. 이러한 지향점은 분화된 동력과 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상반되는 기운의 균형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음양사상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의 성쇠盛衰와 변화로 설명하는 사상으로 상대적 의미를 지닌 대상의 화합과 조화로써 완성되는 개념이다. 동양철학에서는 만물의 운행 법칙을 음양의 생성과 순환원리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음양사상

3) 이은봉(1995), 음양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서울: 집문당), p.71.

5) 기본운동단계는 만2세경부터 7세까지의 운동단계이다. 이 시기부터는 운동발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 ‘두 발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약13개월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이동운동기술인 걷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유아의 이동운동능력이 급속히 발달되어 약18개월이 되면 달리기 가능하게 된다. (박대근(2005), 유아기 대소근육 운동 발달의 과정적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5.)

에 관한 사유의 틀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체화된 개념이다. 명암에서 비롯된 음양의 현상은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공전이라는 천체의 변화 속에서 일정한 규칙의 자연 현상으로 되풀이된다. 인간은 이와 같은 상보적 관계의 순환을 예외가 없는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여긴다.⁶⁾ 이러한 보편적 자연법칙과 원리를 풀이한 『주역(周易)』⁷⁾에서 조화는 상대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성에 근거한다. 이는 대립적인 성향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불가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주역』의 사상은 우주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생성, 반복, 순환하고 있다는 이론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자연의 이치를 인간의 '도道'와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⁸⁾ 음과 양의 순환원리는 인류의 보편적 원리로 여겨졌으며, 단순한 점서로 여겨졌던 『주역』이 철학적으로 체계화되는 데 중요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역학에서는 탄생, 성장, 쇠퇴 그리고 사멸을 음과 양의 용어로 대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양사상은 역학의 전체를 담는 근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사상은 양 극이 각자의 개성을 지니는데, 이는 고립이 아닌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관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이상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특히 동양의 문화권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동양철학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음양사상의 개념은, 중국의 춘추시대(B. C. 770-403) 초까지 주로 자연현상에 대한 풀이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곧이어 음양가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했으며 『주역』이 체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학문적 접근은 음양사상에 대한 논리적인 정립을 실현시켰다. 한자의 구조와 뜻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 후한 시대의 학자 허신이 편찬한 『설문해자』에는 음양의 자의에 대한 설명이 기록⁹⁾되어 있으며 고 윤임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露는 구름이 해를 덮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구름 운霧(운)에서 비롯되었으며 금속으로 발음한다.¹⁰⁾

易은 연다開는 의미이다. 이는 일日(일)—물勿(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설로는 높이 오름오름이라 했고, 길음길음이라고도 했으며, 일설로는 땅의 끝, 한계疆(강)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¹⁾

음陰은 암闇(암)으로, 물의 남쪽 혹은 산의 북쪽을 의미한다. 부에서 비롯되며 음술(음)으로 발음한다. 양陽은 고명(고)으로, 부에서 비롯되며 양易(양)으로 발음한다.¹²⁾

상기 언급된 『설문해자』의 「운부」와 「물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음과 양의 개념은 모두 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구름이 해를 덮은 상태 즉 밝지 않은 상태를 언급하며 이를 금(음)으로 발음했

6) 이호열(2015), 大巡思想의 陰陽論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7.

7) 『주역(周易)』은 만물의 이치와 생성·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동양 최고(最古)의 경전으로,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朱熹)에 의하여 『역경(易經)』으로 명명되었다. 이는 유학의 다섯 가지 경전인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 중 하나이다.

8) 배진일(2018), 팔괘의 성상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중첩의 시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0.

9) 『설문해자』, 제11편(하) 운부(雲部); 제9편(하) 물부(勿部); 제14편(하) 부부(阜部).

10) 윤임규(1993), p.130.

11) 앞의 책, pp.130-131.

12) 앞의 책, p.131.

던 원전의 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양의 개념을 추측할 수 있다. 연다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양은, 오름과 길음 그리고 한계 등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통해, 구름이 덮인 음의 형상과는 달리 열린 형태 혹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태로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기록에는 해와 음양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음은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물의 남쪽과 산의 북쪽을 의미하며 그들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반면 양은 햇빛이 잘 비치는 물의 북쪽과 산의 남쪽을 의미하며 양지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요소인 햇빛을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음양의 관계와 변화,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순환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음양의 두 글자는 日日이라는 글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이는 단순히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대한 상징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천지, 혼백, 정신과 육체 등과 같은 상보적 개념으로 발전된다.¹³⁾ 음과 양은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각각의 역할을 분명하게 지닌다. 또한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데 있어 음과 양은 어느 한 쪽만으로는 존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음양의 순환적 구조는 상호 대립되면서도 합일을 이루는 조화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유가철학에서의 음양사상

유가철학에서는 개인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우주와 자연의 순환이 가능하며, 이러한 순환을 통해 궁극적인 조화의 미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다. 이는 인간의 심성에서 시작해 생활규범과 생활문화 그리고 넓게는 우주·역사의 순환법칙에까지 일관된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다.¹⁴⁾ 특히 음과 양을 상하의 관계로 두었으며 이를 순환질서의 이치로 보았다. 음과 양은 각각 악과 선,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의 형태로 인간 사회에 적용되었다. 계급을 통한 사회의 질서를 추구하는 유가철학에서는 음과 양의 개념이 수직적 관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중국의 춘추시대 때는 국사를 여섯 가지의 기운으로 논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운을 육기六氣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음과 양은 육기를 총칭하는 단어이다. 음과 양은 춥거나 따뜻한 기상 상태를 내포하는데, 음양의 흐름은 곧 대기의 순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대기의 순환으로 인해 계절이 형성된다. 즉 음과 양의 흐름과 순환은 궁극적으로 만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음양의 순환에 관한 내용은 『국어』의 「월어」하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天道皇皇 日月以爲常 明者以爲法 微者則是行, 陽至而陰 陰至而陽 日困而還 月盈而匡.

하늘의 도가 밝고 밝아 마땅히 해와 달을 보이니, 그것이 밝으면 그 법칙대로 따르고 희미하면 숨어야 한다.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되고,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이 된다. 해는 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달은 가득차면 기운다.¹⁵⁾

이를 통해 첫째, 음과 양이 양자의 개념이며 대립적 관계임과 동시에 상보적 관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특정한 법칙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음과 양은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질서와 규칙은 만물의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해와 달의 형태에 관하여는, 다시 완전체로 돌아오는 ‘해’와 가득 차면 기울게 되는 ‘달’로 언급하며 음양의 다름을 구분하고 있다. 셋째, 음과

13) 김정태(1997), 대순진리(大巡眞理)의 종지(宗旨)에 관한 이해: 음양합덕(陰陽合德)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 p.406.

14) 차용준(2002), 『종교문화의 이해: 제3권 중국 종교 문화편』(전북: 전주대학교 출판원), p.247.

15) 윤임규(1993), p.54.

양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위의 내용을 통해, 규칙에 따른 천체의 변화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조화의미를 엿볼 수 있다. 즉 음양의 질서는 자연의 이치이자 순리적 흐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과 양의 개념을 악과 선의 개념과 유사한 맥락으로 여겼던 유가철학에서의 음양은 배음향양背陰向陽적 요소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 관계로의 조화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유가의 음양사상은, 주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부터 남녀의 차별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매우 컸으며, 신분제도, 남존여비사상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상 등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도가철학에서의 음양사상

도가에서는 인간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목표로 도道의 개념을 중시했다. 또한 하늘이 주관하여 우주에 적용되는 만물의 순환 원리를 천지자연의 도리인 ‘천도天道’로 여겼으며, 이를 올바른 삶의 규범이자 인간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도리인 ‘인도인導’와 구분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목적은 우주와 자연을 꿰뚫어보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우주와 자연의 순리적인 순환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지표로써 바라보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생생의 도’를 본받고자 하는 도가철학자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특히 도가철학은 노장사상을 계승 및 발전시킨 학문으로,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지혜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욕심내지 않는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한다. 이는 도의 개념을 근간으로 ‘존재’에 대하여 사유하는 방식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존재론, 즉 진리를 탐구하는 사상이다.¹⁶⁾ 이러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고착화되기 쉬운 사유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문하고 다시 사유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특정한 개념으로 형상화되지 않는 부정不定의 시각으로 도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하였다.¹⁷⁾ 가령 깊은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리로 속단한 대상에 대하여 ‘진리는 없다’라기 보다 ‘그것은 아직 진리가 아니다’라고 재인식 하게 하여, 미지의 진리이자 무한의 형태로 남겨두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¹⁸⁾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도가철학에서는 특정한 개념이 언어에 의해 규정되고 정의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중국 위나라의 노장철학자 왕필王弼은 언어로써 존재와 도의 개념이 표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특정한 개념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행위는 형체를 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반드시 나뉘고, 결국 지극함을 잃는다고 여겼다. 특히 언어적 질서에 의하여 구분되는 선과 악, 미와 추, 무와 유 등의 대립적 개념을 우위가 아닌 대대待對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⁹⁾ 이처럼 언어로 규정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문하고 재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도가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도가철학에서의 음양사상은 상하 혹은 우위의 개념이 아닌 순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음양의 기운이 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도덕경』 제42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16) 박이문(2004), 『노장사상』(서울: 문학과지성사), p.34.

17) 이은정, 김명숙(2018), p.141.

18) 박원재(2006), 『노장철학과 해체론』(서울: 오늘의 동양사상 14), p.121.

19) 이은정, 김명숙(2018), p.141.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도는 일을 생하고, 일은 이를 생하고, 이는 삼을 생하며, 삼은 만물을 생한다. 만물은 음을 짙어 지고 양을 안으며, 충기로 조화를 이룬다.²⁰⁾

이는 음양에 대하여 『도덕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있는 설명으로, 이 구절에서 ‘도’는 근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짝을 이루는 상대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개념이다. 일에서 생하는 이, 이에서 생하는 삼의 형상은 세포의 분화과정을 통한 생명체의 성장·생식·진화의 과정과 흡사하다. 위의 구절에 언급되는 삼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음양이 화합하여 균등한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음양이 화합하여 나타나는 화목한 기운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만물이 음을 짙어진다는 것은 어둠에 있어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은 밝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즉 만물은 측량하기 어려운 음을 등에 짙어져 뒤로하고 양을 향하며, 더 나아가 음양의 기운이 균형있고 조화로운 화해和諧의 상태로써 충기를 이룰 때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설을 기반으로 음양의 순환적인 측면에 대하여 논한 내용은 『장자』의 「재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人大喜邪 毘於陽. 大怒邪 毘於陰. 陰陽竝毘, 四時不至, 寒暑之和不成, 其反傷人之形乎.

사람이 크게 기쁘면 자연의 양기가 손상되고, 사람이 크게 화를 내면 자연의 음기가 손상된다. 음양이 함께 손상되면 사계절의 조화가 깨지고 추위와 더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사람의 몸을 상하게 만든다.²²⁾

위의 구절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음양을 언급한 것으로,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정도를 지나치면 음양의 기운이 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음양이 함께 손상된다는 것은 음양의 기운이 서로를 침해하여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에 인간은 음양, 사철, 한서寒暑가 조화를 이루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대의 사상가들은 음양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조화를 이룰 때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실현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음과 양이 서로를 동動하게 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개념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였다. 즉 음양사상은 경쟁과 배격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소통과 조화로 존속할 수 있는 공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음양사상의 순환원리에 따른 특징

	유가철학	도가철학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과 양의 수직적 관계 - 상호가 질서와 규칙을 유지하는 관계 - 음과 양의 기운이 질서 있게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성·소멸된다고 여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과 양의 수평적 관계 - 상호 대체 가능한 관계 - 음과 양의 기운이 모여 순환하는 것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성·소멸된다고 여김

20) 윤임규(1993), p.143.

21) 앞의 책, p.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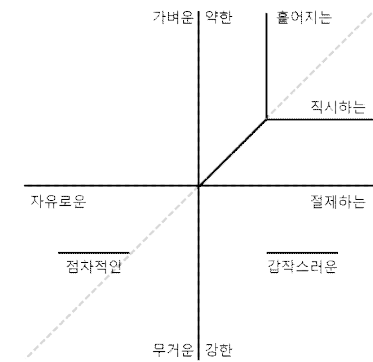
22) 사봉 조진형(2018.12.5.), “장자 재유편(在宥篇) 2 - 당근과 채찍으로는 안 된다.”, <<https://blog.naver.com/sabong50/221412621835>, 2020.5.12.>.

III. 음양의 순환원리를 적용한 춤사위 개발

철학적 사유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에 대한 근원적 의문, 그리고 자기인식에 대한 재고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철학적 근거를 한국춤 예술로 재해석하고 그 상관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동양철학 개념의 예술표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와 동시에 한국춤 안무가에게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음양의 순환원리를 적용한 8개의 춤사위를 개발하였다. 춤사위는 자연현상의 생성, 성장, 쇠퇴, 사멸의 순환구조와 인간의 운동발달 단계 중 기본운동단계²³⁾의 특질에 모티브를 얻어 앉고, 서고, 걷고, 달리는 좌립보주의 상징적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춤사위의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루돌프 본 라반의 에포트(Effort)²⁴⁾ 이론을 활용하여 각 춤사위의 특징을 도식화 하였다.

기호에 의한 움직임의 기보법記譜法인 ‘키네토그래피’를 고안한 루돌프 본 라반Rudolf Von Laban은 용의 심적 기능과 자연 현상, 그리고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을 접목하여 네 개의 에포트 인자(무게, 공간, 흐름, 시간)를 규정하였다.²⁵⁾ 각각의 인자는 그 안에 상반되는 성질의 요소가 존재하며 이는 음양사상에서 음과 양의 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에포트를 구성하는 네 개의 인자 중 첫째,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이는 무겁거나 가벼운, 강하거나 약한 특징의 상반된 속성이 존재한다. 둘째, 공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이는 직시하거나 흩어지는 시선의 상반된 속성이 존재한다. 셋째, 흐름은 내적, 심리적 감각의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이는 절제하거나 자유로운 특징의 상반된 속성이 존재한다. 넷째, 시간은 진행 과정의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이는 동작의 수행에 있어 갑작스럽거나 점차적인 특징의 상반된 속성이 존재한다. 이를 도식화한 그래프(그림 1)를 통해 사선을 기준으로 움직임의 상반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에포트 그래프

춤사위 분석은 세 개의 인자가 결합된 에포트 총동(effort drives²⁶⁾ 중 인간의 움직임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동작총동(action drive)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동작총동은 무게, 공간, 시간 인자를 결합한 것으로 ‘무엇을, 어디로, 언제’와 같은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내적·심리적 감각의 영향을 받는 흐름 에포트가 잠재된 개념으로 존재한다. 라반은 이러한 동작총동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여덟 가지의 에포트 조합을 기본 에포트 동작(basic effort actions)이라고 명명하였다.²⁷⁾ 동작총동은 비교

23) 기본운동단계는 만2세경부터 7세까지의 운동단계이다. 이 시기부터는 운동발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 ‘두 발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약13개월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이동운동기술인 걸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유아의 이동운동능력이 급속히 발달되어 약18개월이 되면 달리기가 가능하게 된다. (박대근, 유아기 대소근육 운동 발달의 과정적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5.)

24) 에포트(Effort)란 동인, 원동력을 뜻하는 독일어 ‘Antrieb’에서 비롯된 단어로,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감정으로 인해 특정한 반응이 외부로 표출되는 과정에서의 동기 혹은 내적총동을 의미한다.

25) 신상미, 김재리(2010), 『몸과 움직임 읽기: 라반 움직임 분석의 이론과 실제』(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82.

26) 열정총동(passion drive), 마술총동(spell drive), 환상총동(vision drive), 동작총동(action drive)

27) 신상미, 김재리(2010), p.108.

적으로 관찰하기 쉬운 중력의 정도, 수행 장소, 그리고 진행의 과정을 나타내는 에포트 인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춤사위 분석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것이다.

〈표 2〉 기본 에포트 동작(Basic Effort Actions)

비틀기	누르기	뜨기	미끄러지기
내리베기	때리기	튀기듯 때리기	가볍게 두드리기

1. 음(陰)의 춤사위 1의 특징

음의 춤사위 1은 땅과 중력의 힘을 음의 개념으로 상징하여 형상화한 동작이다. 중력이 당기는 힘을 받아 아래로 하강하는 힘을 보여주는 이 춤사위는, 들숨의 준비과정을 통해 손끝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더욱 무겁고 강하게 진행한다. 하강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광배근을 눌러 내리는 신체 후면의 공간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신체의 중앙에 양 손을 모아 한 호흡으로 느리게 들어올린다. 이때 순환적 특질이 나타나는 원의 형상을 그리며 양 손을 뒤쪽으로 밀어내 모은다. 이후 하강의 긴장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때 복직근을 밀어 올리는 신체 전면의 공간을 인지한다. 춤사위는 무겁고 강한 힘과 직시하는 시선을 통해 힘의 전달을 점차적으로 확장시킨다. 이처럼 음의 춤사위 1은 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땅의 공간으로 기운을 뻗어내는 음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동작이다.

춤사위	춤사위 흐름	에포트 그래프
음(陰)의 춤사위 1		
특징	누르기(PRESS), 무겁고 강한/직시하는/점차적인	

2. 음(陰)의 춤사위 2의 특징

음의 춤사위 2는 불안정의 패턴을 음의 개념으로 상징하여 형상화한 동작이다. 날숨의 준비과정을 거쳐 양손을 다리로 모아 내린 다음 한쪽 다리로 균형을 유지하며 신체 하부의 에너지를 몸의 중심까지 끌

어울린다. 불안정한 균형과 비례의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비대칭의 선을 나타내며 공간을 내리베는 질감으로 분산된다. 이는 머리-꼬리 연결성을 인지하며 신체 내부의 수직선을 통과하는 연결을 통해 자가 감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김과 밀어냄의 특질로써 진행되는 이 춤사위는 무겁고 강한 힘과 흠어지는 시선을 통해 힘의 강약을 순간적으로 전환한다. 이처럼 음의 춤사위 2는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며 상반된 긴장감이 지속되는 춤사위로 음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동작이다.

춤사위	춤사위 흐름	에포트 그래프
음(陰)의 춤사위 2		
특징	내리베기(SLASH), 무겁고 강한/흠어지는/갑작스러운	

3. 음(陰)의 춤사위 3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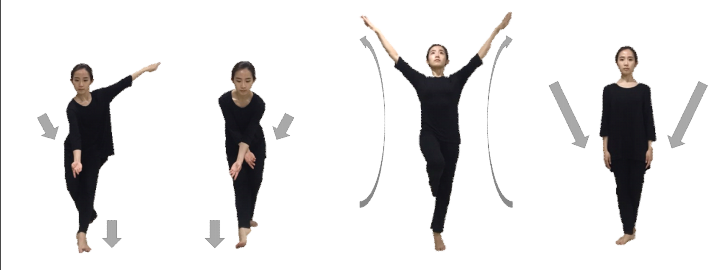

음의 춤사위 3은 하강의 과정을 음의 개념으로 상징하여 형상화한 동작이다. 공간의 이동을 통한 순차적 하강을 회전으로 연결하여 순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대퇴부의 힘은 유지하되 발은 앞으로 밀고나가며 한 발씩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신체 후면에서 광배근을 밀어내는 힘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수행하며 두 번째 발 이동시 발-몸통-머리를 순차적으로 돌려 내린다. 회전 시 닫힌 방향의 복사근은 강하게 모여 양 팔은 하늘의 공간으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눌러 내린다. 춤사위는 순환적 특질이 나타나는 원의 형상을 유지하며, 가볍고 약한 힘과 직시하는 시선을 통해 힘의 전달을 점차적으로 확장시킨다. 이처럼 음의 춤사위 3은 대퇴부의 긴장감을 시작으로 하여 더욱 깊은 하강으로 마무리하는 움직임을 회전의 형태로 연결한 춤사위로 음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동작이다.

춤사위	춤사위 흐름	에포트 그래프
음(陰)의 춤사위 3		
특징	미끄러지기(GLIDE), 가볍고 약한/직시하는/점차적인	

4. 음(陰)의 춤사위 4의 특징



음의 춤사위 4는 모이고 닫히는 형상을 음의 개념으로 상징하여 형상화한 동작이다. 신체 전면을 한

손씩 순차적으로 튀기듯 때리며 밀고 나오는 이 춤사위는, 날숨의 준비과정을 통해 신체 전면 중앙의 아래를 손끝으로 찌르며 시작한다. 양손을 모은 뒤 하늘의 공간으로 펼쳐 올리는 동작은 두 번째 준비 과정으로서 가볍게 연결되며 이후 양팔을 옆으로 내려 닫으며 전거근을 수축한다. 춤사위는 가볍고 약한 힘과 흠어지는 시선을 통해 힘의 전달을 순간적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음의 춤사위 4는 수축하고 닫히는 음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동작이다.

춤사위	춤사위 흐름	에포트 그래프
음(陰)의 춤사위 4		
특징	튀기듯 때리기(FLICK), 가볍고 약한/흠어지는/갑작스러운	

5. 양(陽)의 춤사위 1의 특징

양의 춤사위 1은 하늘과 중력의 힘을 양의 개념으로 상징하여 형상화한 동작이다. 중력의 힘을 받아 위로 상승하는 힘을 보여주는 이 춤사위는, 손끝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따라 상체-하체가 연결되는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양 손을 머리 끝 중앙으로 모아오는 동시에 지지하고 있던 뒷발의 힘을 받아 몸을 회전하며, 이와 동시에 광배근을 들어 올리는 신체 후면의 공간을 인지하여 느리게 들어올린다. 이때 하늘의 공간을 감싸 안으며 대퇴 관절의 굴곡과 신전을 통해 골반을 상승하는 시킨다. 춤사위는 무겁고 강한 힘과 직시하는 시선을 통해 힘의 전달을 점차적으로 확장시킨다. 이처럼 양의 춤사위 1은 중력의 힘을 인지하여 점차 하늘의 공간으로 향하는 양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동작이다.

춤사위	춤사위 흐름	에포트 그래프
양(陽)의 춤사위 1		
특징	누르기(PRESS), 무겁고 강한/직시하는/점차적인	

6. 양(陽)의 춤사위 2의 특징

양의 춤사위 2는 균형의 안정감을 양의 개념으로 상징하여 형상화한 동작이다. 이는 개인공간에서 신체를 중심으로 양 팔이 회전하면서 점차 곡선의 형태를 나타낸다. 양 팔꿈치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좌우 복직근과 단전은 신체의 중심점으로 강하게 모이며 지속적인 회전의 긴장상태를 유

지하고, 회전의 힘을 받아 들숨의 준비과정을 거쳐 한 호흡에 상체와 양 팔을 내려모은다. 춤사위는 무겁고 강한 힘과 흠어지는 시선을 통해 회전을 이어가며 힘의 전달 방향을 순간적으로 변경한다. 이처럼 양의 춤사위 2는 개인공간에서의 회전을 통해 힘의 전달을 다시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안정적인 패턴의 양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동작이다.

춤사위	춤사위 흐름	에포트 그래프
양(陽)의 춤사위 2		
특징	내리베기(SLASH), 무겁고 강한/흠어지는/갑작스러운	

7. 양(陽)의 춤사위 3의 특징

양의 춤사위 3은 상승의 과정을 양의 개념으로 상징하여 형상화한 동작이다. 들숨과 함께 양 손을 모아올리는 준비과정을 거쳐 한 손은 하늘의 공간을 향하며 다른 한 손은 땅의 공간을 향해 미끄러지며 내린다. 이어서 양 손을 상체의 중심부로 모아오며 복직근을 수축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땅의 공간으로 떨어뜨린 손을 하늘의 공간으로 밀어올린다. 이때 날숨과 함께 상승하는 힘을 손끝으로 연결하며 점차 빨라지는 속도로 잔걸음 한다. 춤사위는 순환적 특질이 나타나는 태극의 형상으로 연결되며 가볍고 약한 힘과 직시하는 시선을 통해 힘의 전달을 점차적으로 확장시킨다. 이처럼 양의 춤사위 3은 신체의 중심-말단을 연결하여 상대되는 사지를 인지하여 상승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춤사위로 양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동작이다.

춤사위	춤사위 흐름	에포트 그래프
양(陽)의 춤사위 3		
특징	미끄러지기(GLIDE), 가볍고 약한/직시하는/점차적인	

8. 양(陽)의 춤사위 4의 특징

양의 춤사위 4는 모이고 닫히는 형상을 양의 개념으로 상징하여 형상화한 동작이다. 양 손을 순차적으로 튕기듯 때리며 밀어내는 이 춤사위는, 단전으로 힘을 모으는 동시에 들숨의 준비과정을 거쳐 다른

사지로 힘을 뺏어내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신체 내부와 외부의 순환적 특질로써 나타낸다. 움직임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균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춤사위는, 일련의 탄성적 효과에 관여하는 근육을 통해 중심지지를 이룬다. 이는 가볍고 약한 힘과 흠어지는 시선을 통해 힘의 전달을 순간적으로 진행하며, 이처럼 양의 춤사위 4는 닫히고 열리는 양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동작이다.

춤사위	춤사위 흐름	에포트 그래프
양(陽)의춤사위 4		
특징	튀기듯 때리기(FLICK), 가볍고 약한/흠어지는/갑작스러운	

IV. 결론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화해에 대한 담론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이러한 순환적 흐름과 조화의 태도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춤 춤사위를 통해 상대적 개별자가 지닌 특성과 상호간의 긴장감을 활용하여 조화미調和美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음양의 순환원리를 적용한 춤사위 개발 및 분석으로, 음양의 순환원리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춤사위를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8개의 춤사위를 기반으로 무용창작작품 『생생지도生生之道』를 안무·발표하였다. 내용, 의상, 음악, 장면구성의 측면에 있어 음양의 순환원리를 더욱 심도있게 발전시킨 이 작품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 내면의 빛, 2장 분화와 갈등, 3장 본질과의 조우, 4장 순환과 합일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귀결된 8개의 춤사위는 다음과 같은 총체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음양의 순환원리를 춤사위로 개발한 결과 각각의 춤사위는 좌, 립, 보, 주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생장에 있어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서 뿌리-줄기-가지-열매와 같은 인과적이고 순차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춤사위는 무게, 공간, 시간의 인자가 포함되어있었으며, 각각의 춤사위는 다른 형태의 기본 에포트 동작으로 나타났으나 음의 춤사위와 양의 춤사위가 상호 짝을 이루었다. 셋째, 음의 춤사위와 양의 춤사위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각 특질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선 음의 춤사위는 땅, 불안정의 패턴, 하강, 닫힘의 특질로 형상화되어 누르기, 내리베기, 미끄러지기, 튀기듯 때리기의 에포트 동작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의 춤사위는 하늘, 안정, 상승, 열림의 특질로 형상화되어 누르기, 내리베기, 미끄

러지기, 텅기듯 때리기의 에포트 동작으로 나타나 음의 춤사위와 상호 짝을 이루었다. 넷째, 상대되는 개념이자 구분이 없는 음양사상의 지향점이 순환적 움직임의 특질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상과 춤사위 간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음양의 순환원리를 적용한 8개의 춤사위는 음양의 작용과 변화를 통해 창출되는 조화미를 한국 창작춤의 춤사위로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양철학과 춤사위 개발의 적용과정을 밝혀 한국춤의 영역을 확장하고 안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의의를 지닌다. 동양철학의 기초가 되는 음양사상의 개념은 서양문화권에서도 꾸준히 화두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문, 예술, 명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질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동양철학을 춤사위로 구현하는 작업은 온 인류가 전 세기동안 찾고 있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구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공존과 화해의 아름다움을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들어 세계무대로의 진출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재,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 춤사위 개발 및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춤 영역의 확장을 이루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 창작춤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박원재(2006). 『노장철학과 해체론』. 서울: 오늘의 동양사상 14.
- 박이문(2004). 『노장사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 방지형(1997). 『세계종교와 기독교, 어떻게 다른가』. 서울: 도서출판 영성.
- 신상미, 김재리(2010). 『몸과 움직임 읽기: 라반 움직임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윤임규(1993). 『역경의 생생 사상 연구』. 이숙자(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1.
- 이은봉(1995). 음양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 서울: 집문당.
- 차용준(2002). 『종교문화의 이해: 제3권 중국 종교 문화편』. 전북: 전주대학교 출판원.
- 김정태(1997). 대순진리(大巡眞理)의 종지(宗旨)에 관한 이해 -음양합덕(陰陽合德)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2.
- 박대근(2005). 유아기 대소근육 운동 발달의 과정적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진일(2018). 팔괘의 성상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중첩의 시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정, 김명숙(2018). 노장사상의 무(無) 사유형식을 적용한 춤사위 개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1(4): 139-158.
- 이호열(2015). 大巡思想의 陰陽論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사봉 조진형(2018.12.5.). “장자 재유편(在宥篇) 2 - 당근과 채찍으로는 안 된다.”, <<https://blog.naver.com/sabong50/221412621835>, 2020.5.12.>.
- 『설문해자』. 제11하 운부(雲部); 제9하 물부(勿部); 제14하 부부(阜部).

논문투고일 2020. 11. 15.
심사일 2020. 11. 22.
심사완료일 2020. 12. 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ance Movements Applying the Circular Nature of *Yin-yang* Principles

Nam, Sun Hee

Ph.D. Candidat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dance movements applying the circular nature from the *Yin-yang* principles. Eight dance movements have been newly developed to express the harmonious beauty created through the actions and changes in *Yin-yang* as movements for original Korean dan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dance movements are analyzed and expressed in diagrams utilizing the Effort theory by Rudolf von Laban.

This study is expected to develop new dance movements, to expand the realm of Korean dance, and to present a new direction for choreography. Furthermore, the study is significant as a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dance movements based on oriental philosophy.

This study reveals the process for applying the concept of circularity of the *Yin-yang* principles. Through this process, to consider the concept of ceaseless production and its practice, this study emphasizes the state of harmony that fundamentally needs to be pursued.

Keywords: *Yin-Yang*(음양), Circularity(순환성), Harmonious beauty(조화미), Korean dance(한국춤), Developing movement(춤사위개발)